



삼성전자

W2400 스페셜 에디션 한정판 출시

삼성전자가 AMOLED를 장착한 휴대폰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HSDPA폰(SPH-W2400)의 기존 TFT-LCD를 AMOLED로 변경한 W2400 스페셜 에디션을 한정판(1000대)으로 출시했다고 지난 달 5일 밝혔다. 가격은 50만원대이다.

OLED는 LCD와 비교해 시인성, 응답속도, 소비전력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백라이트가 없어 초박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AMOLED를 탑재한 W2400 스페셜 에디션은 TFT-LCD 대비 선명한 색상, 풍부한 색감, 잔상없는 동영상 재현 등을 제공한다. DMB 방송, 영상통화, GAME 등을 더욱 생생한 고화질 동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AMOLED를 채용한 휴대폰을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내놓아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고화질 휴대폰 시대를 열었다"며 "지속적으로 AMOLED를 채용한 휴대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 SMS / LMS 요금 인하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이 단문메시지(SMS) 요금 인하를 단행한다.

People&People

SKT 조직개편...CIC 제도 도입으로 '책임경영' 강화

글로벌 인터넷 컨버전스 사업에 초점...국내 영업 마케팅에 무게감



김신배
대표이사



오세현
전무



하성민
전무



서진우
전무

SK텔레콤이 지난달 21일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조직을 ▲MNO 비즈 컴퍼니 ▲글로벌 비즈 컴퍼니 ▲C&I 비즈 컴퍼니(Convergence & Internet Biz. Company) ▲CMS 컴퍼니(Corporate Management Support Company) 등 4개 CIC 로 재편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K텔레콤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글로벌 사업과 인터넷 및 컨버전스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C&I 비즈 컴퍼니와 글로벌 비즈 컴퍼니를 개별 사내독립 기업으로 별도화, C&I 비즈 컴퍼니는 오세현 전무가, 글로벌 비즈 컴퍼니는 서진우 전무가 각각 수장을 맡게 됐다. 특히, C&I 비즈 컴퍼니는 컨버전스 사업을 위한 타 업종과의 업무 제휴 및 인터넷 사업 확대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유, 무선을 망라해 점점 치열해 지는 국내 통신 시장의 상황을 의식해 국내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에도 중

점을 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대 비즈 컴퍼니 중 하나로 MNO 비즈 컴퍼니를 편성했는데, 이는 기존 MNO(Mobile Network Operator) 조직을 한 단계 승격시킨 것이다. 이 비즈 컴퍼니는 국내 서비스 영업과 마케팅, 시스템 R&D 부문을 통합하게 되며, 하성민 전무가 조직을 이끌게 됐다. 마지막으로, 김신배 대표이사 사장이 겸임하는 CMS컴퍼니는 전사 전략조정/SKMS를 기반으로 한 인사, 시스템, 기업문화의 일관된 혁신/ 리소스 관리/대의 관계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송진규 부사장은 SK네트웍스 정보통신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이방형 부사장은 SK MC(Marketing Company)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LGT텔레콤(www.lgtelecom.com 대표 정일재)은 1월 1일부터 SMS(Shot Message Service : 단문서비스) 요금을 현행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한 번에 최대 120자(한글)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LMS(Long Message Service : 장문서비스)도 60원에서 40원으로 20원 인하하기로 했다.



SK텔레콤

통신업계 첫 CCMS 인증 획득

SK텔레콤(www.sktelecom.com 사장 김신배)은 지난 3월 고객만족을 위해 도입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CCMS) 프로그램이 통신업계로는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소비자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사전 구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에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CC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교보생명 외 8개사이며 이번 인증 심사를 통해 SK텔레콤 외에 6개사가 추가돼 최종 15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0년 연속 1위, 9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8년 연속 1위, 10월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KCSI)에서 10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통신 업계 최초로 CCMS 인증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한층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영규 CV 추진실장은 "SK텔레콤이 월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고객 지향적인 경영과 이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남중수 KT 사장, 차기 사장 후보로 '낙점'

KT 사추위, 단독 후보 선정...사실상 연임 확정적



남중수 KT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 사장이 민영2기에 이어 민영3기 KT를 이끌게 됐다.

KT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지난달 3일 남중수 현 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중수 사장 후보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KT 민영화 이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 되며 임기는 2011년 정기주총까지다.

KT 이사회는 현 사장의 임기가 2008년 정기주총까지임을 감안해 올해초부터 사외이사 주도로 차기 사장 선임에 대한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달 13일 사외이사 7인, 전직 사장 1인과 민간위원 1인으로 사추위를 구성한 바 있다.

사추위는 복수의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 사장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집중적으로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사추위는 남중수 사장후보가 지난 2년간 고객중심 회사의 변

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KT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

윤정로 사추위 위원장(카이스트 교수)은 "KT의 제반 경영 여건과 민영 3기의 과제를 고려할 때 현 남중수 사장이 가장 적임자라는데 모든 사추위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남중수 사장후보는 지난 82년 KT(舊 한국통신) 출범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후 KT IMT사업본부장, 재무실장, KTF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KT 사장을 맡아 고객만족대상 전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는 등 고객가치를 혁신과 KT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IPTV, 와이브로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남중수 사장후보는 1955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듀크대 경영학 석사, 메사추세츠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TF 사장, KT 사장 등 지난 25년간 KT그룹에 몸담으면서 국내 통신사업발전의 중심에서 그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KTF

‘SHOW 이마트 요금’ 출시

이동통신 요금 사용 수준에 따라 이마트에서 쇼핑한 금액을 할인해주는 이동통신-할인점 제휴 요금상품이 등장했다.

KTF(www.ktf.com 대표 조영주)는 국내 할인점 이마트(emart.shinsegae.com 대표 이경상)와 손잡고, 매월 사용한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까지 이마트 쇼핑금액에서 할인해주는 ‘쇼(SHOW) 이마트 요금’과 ‘쇼 이마트-삼성카드 요금’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쇼 이마트 요금은 요금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사용한 통신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 수준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5%(최대 2만 5000원 한도)까지 무형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이마트에서 쇼핑한 뒤 계산대에서 본인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쇼핑 금액에서 할인 쿠폰 금액 만큼을 즉시 할인해주는 신개념 제휴 요금이다.

이와 함께, 쇼 이마트-삼성카드 요금은 요금에 가입하고객의 월 통신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 사용금액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5%(최대 2만 5000원 한도)까지 삼성카드 로 결제한 이마트 쇼핑 금액을 매월 카드 청구대금에서 할인해주는 제휴 요금이다.

한편 KTF는 쇼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KTF 2G 고객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KTF 이마트 요금’과 ‘KTF 이마트-삼성카드 요금’을 함께 출시한다.



LG전자

베트남서 ‘품질 대상’ 수상

LG전자가 베트남에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다.

LG전자(www.lge.com 대표 남용)는 최근 베트남 웅원 티

People&People

SK텔링크 신입 사장에

김철규 SK 네트워크스 부사장 임명

SK텔링크의 신입 사장에 전 SK네트워크스 김철규 부사장이 선임됐다.

SK텔링크(www.sktelink.com)는 신입 사장으로 SK네트워크스 김철규 부사장이 1월 1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철규 SK텔링크 사장은 지난해 VoIP 사업에 진출한 SK네트워크스의 네트워크사업 부문장을 맡아 인터넷전화, 전자정부통신망 사업 진출 등 정보통신 사업 확장에 기여해 왔다.

김 사장은 52년 서울 출생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대우통신 종합연구소, 현대전자 통신연구소를 거쳐 SK텔레콤 상품기획본부장, 올해까지 SK네트워크스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조만래 전 SK텔링크 사장은 SK텔레콤 내 사내독립기업 중 하나인 CMS 컴퍼니에서 전자 전략조정, 자원 관리, 대외 관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신입 CIO에

박주원 부행장 선임

신한은행 CIO(최고정보책임자)로 박주원 전 개인고객부영업본부장이 부행장으로 승진, 선임됐다. 직전 CIO인 김은식 부행장은 퇴임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신한금융그룹 인사에 따른 보직발령을 실시, 새로 승진한 박 부행장을 IT본부장(CIO)로 선임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새로 선임된 박 부행장은 1954년 생으로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9년 조흥은행으로 입행했다. 이후 강남기업금융센터 지점장, 비서실장, 인사부장, 중부지역본부장, 개인고객부 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한편, 신한·조흥은행 통합 CIO로 선출, 2년여 동안 IT본부를 이끈 김은식 부행장은 성공적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한 후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엔 년 부수상으로부터 '품질 대상(VQA: Vietnam Quality Award)'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품질 대상은 매년 뛰어난 품질과 성과를 보인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리더쉽 (Leadership) ▲품질관리 시스템 ▲고객만족 ▲마케팅활동

▲인재개발 ▲경영성과 ▲혁신활동 등 7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로 12회째다.

LG전자는 '품질 대상 2007' 평가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과 현지업체를 포함, 총 300여 기업과 경쟁을 벌여 가장 높은 점수인 930점을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성 LG전자 베트남법인장은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경제성장에 힘입어 프리미엄 가전 시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LG 전자를 베트남 국민들이 선택하는 전자업계의 한류스타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베트남에서 올해 2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가전시장 1위에 올랐다. 2010년까지는 매출을 5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KT파워텔 마케팅부문에

김용호 KT 상무 임명

KT파워텔은 신입 마케팅부장(상무)으로 김용호 KT 솔루션사업본부 시큐리티 사업담당을 임명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김용호 상무는 한국항공대학교를 거쳐 KT에서 통신기술, 경영혁신, 사업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으며, 2008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KT파워텔의 마케팅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KT파워텔측은 주요 고객인 기업, 물류부문 고객들의 핵심요구사항이 솔루션 및 기술접목추세로 발전하고 있어 김용호 상무의 다양한 경험이 내년도 마케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LG텔레콤, 2008 임원인사 단행

박상훈 · 권준혁 · 민응준 등 3명 상무로 신규 선임



박상훈 상무



권준혁 상무



민응준 상무

LG텔레콤은 2008년도 임원인사를 통해 박상훈 전략기획팀장과 권준혁 기술전략담당, 민응준 CRM담당 등 3명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이번에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3명은 모두 40~41세의 젊은 인재들로, 그동안 현업에서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자들이다.

박상훈 상무는 영업과 기획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영업1부문 강박사업부를 맡게됐으며, 권준혁 상무는 네트워크기술전문가로서 기술부문 기술전략담당을, 민응준상무는 전략업무통으로 비즈니스개발부문 컨버전스담당을 수행하게 된다.

또, LG텔레콤은 전문인력의 수혈 차원에서 이승일 LG경제연구원 상무, 유원 LG경영개발원 상무, 이종수 LG전자 CFO Business Audit팀장을 영입했다.



포스데이타 KT에 와이브로 장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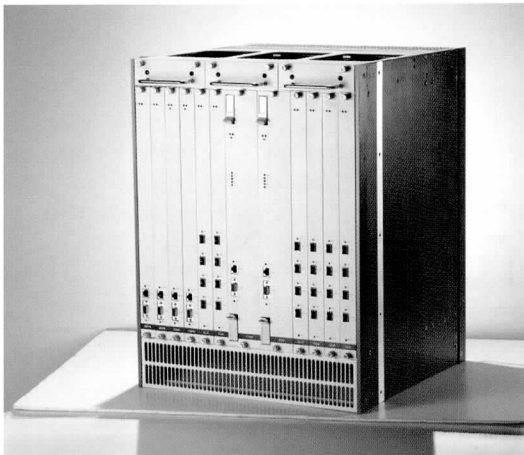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만 서비스되던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와이브로(Wibro)'가 내년부터 포항에서도 서비스된다.

포스데이타와 KT는 12월 20일, 경북 포항시 효곡동 일대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와이브로 타운'을 만들고,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최근 경기도 분당 포스데이타 본사에서 유병창 포스데이타 사장과 표현명 KT 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데이타는 KT에 와이브로 장비를 공급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상용서비스 시점은 내년 9월 경이 될 전망이다.

포스데이타가 제공하는 장비는 와이브로 기지국, 제어국, 망관리 등 시스템 장비를 일체와 서비스 가입자들이 사용하게 될 단말기까지 포함된다.



포스데이타 FLYVO사업본부 신준일 본부장은 "포항지역에 와이브로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메가TV' 월트디즈니 콘텐츠 대폭 강화

KT의 메가TV 이용자들은 디즈니채널의 다양한 인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됐다.

KT(대표 남중수)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대표 임혜숙)는 메가TV에 디즈니의 프리미엄급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제휴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인 '킴 파서블', '악동 황제 쿠스코', 청소년을 위한 시트콤 '한나 몬타나' 및 미취학 아동 TV학습채널인 '플레이하우스 디즈니'의 인기프로그램 '미키의 클럽하우스', '리틀 아인슈타인' 등이 제공된다.

특히, 디즈니채널과 플레이하우스 디즈니의 콘텐츠를 우리말 더빙, 영어원음, 영어자막의 3가지 언어 형태로 제공돼 영어교육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위기의 주부들', '그레이 아나토미', '로스트' 등 드라마 시리즈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월트디즈니 픽처스, 픽사 및 터치스톤 영화사의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라따뚜이', '내셔널 트레저', '로빈슨 가족' 등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추가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다.